

長興任氏國士齊公派譜序

무릇 나무는 뿌리가 있고 물도 근원이 있나나 人間이 그 根源과 枝末을 찾게됨이 그 本性이며 祖上을 崇仰하고 蔭德을 承襲함은 人倫의 正道라 하겠다

人間社會는 각기 種族이 다르고 民族이 다르며 또 氏族이 다르며 特히 我東方에는 그 氏族의 淵源을 찾고 宗族間 遠近을 좇아서 그에 相應한 稱呼와 處遇를 하는 것이 우리의 美德이며 通念으로 삼아오던바 近來에 西歐文物의 汜濫으로 倫理道德의 解弛와 함께 宗族觀念이 漸次 稀薄해지고 甚至於 族과 戚조차 區分을 못하는者 많으며 宗中엔 莫如行(항)이라 했거늘 서로 寸數는 커녕 항렬을 分別치 못하고 行세하는者 許多한 此際에 幸이 近者에 와서 忠孝思想의 復活을 외치고 道德教育을 重視鼓吹하게됨은 實로 늦게나마 歡迎해 마지않는 바이다

同姓同本은 百代之親이라 하지만 여러代를 내려오면서 宗派가 갈리고 멀리 떨어져살아서 서로 잘 모르게 될때와 同族으로서의 敦睦을 도모하는데는 族譜나 派譜를 찾는것이 가장 빠른길일것이다 그리고 先祖의 墓所에 時祭를 모시고 省墓를 드리는것은 一種의 形式이나 封建的遺習이 아니라 一族이 한자리에 모여서 祖上을 推仰하고 子孫間의 融和團結을 圖謀하는 最好的機會요 美風良俗 이 아닐수없다

大抵 族譜는 中國漢代부터 始作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高麗中葉以後부터 시작되었으니 金寬毅의 王代實錄과 任景肅의 璿源錄을 그 嚆矢로삼으며 族譜가 나오기前에는 家牒이나 家乘 그리 고 派譜가 있었었다

이제 吾任國士齊公派에서 大同譜의 浩繁함을 기다리기에 앞서 入順天하신 國士齊公以後의 子孫만이라도 派譜의 重要性을 切感한

나머지 數三宗中 有志의 發議로 이 派譜를 刊行하게 되니 從來의 體裁를 多少 벗어나서 先世以後의 官職 生日 諱日과 墓所 時祭日 字等을 一目瞭然하게 近代의 感覺에 맞도록 編纂에 努力하였음을 慶賀하는 바이니 바라전대 僉宗은 이 派譜刊行을 契機로 一族의 親睦을 더욱 敦篤히하고 倫理道義를 崇尚하여 他의 模範이 되도록 加一層 힘써주심은 強調하는 바이다

檀紀四千三百十年 (西紀一九七七年) 丁巳仲夏

貞敬公二十五世孫 丁模 謹識

甲子舊譜序

譜不能美其族而族能美其譜最初爲人家顯祖者或起於隴畝或舉於漁釣或拔於鼓刀爲王公爲侯伯爲帝者師功業爛然被於海內而富貴福澤延及後昆夷攷其實孝弟而已矣忠孝而已矣文學而已矣是曷嘗籍其譜而立者乎爲子孫者罔念厥祖創立之艱遊嬉怠荒不文不學在家而虧子職在朝而壞臣節孽由己作罰不旋踵則雖金張之閥閱王謝之苗裔終不免一世之僂人是皆不修譜而然哉以此觀之族能美其譜譜不能美其族也明矣然則譜不必修者歟有人斯有族有族斯有譜有譜斯有實踐其實而善繼述則幾矣譜烏可己之也長興任氏今修其譜諸君子謁余曰甚矣吾族之微也遐土委巷綿綿延延譜不修將無以考昭穆而辨宗支矣幸子之一語而相役余乃上究其源則肇自石舸東來之祖冕黻鍾鼎赫赫乎勝國者尚矣本朝判書公瑞宗有開國之功冠山君光世有褒世之勲叅奉公謹有純孝之行節制公希駿與仲眞有忘身衛國之誠叅判公希重與承旨公百英有驚世絕人之學判

書公啓英有敵愾之義汭陽君發英有衛聖之勲掌令鏡觀之救荒諭書承旨
長源之貞忠直言載國乘史照人耳目自是忠孝文學相繼不絕輝暎乎譜牒
其美也固如是也矣諸君子盍思所以趾其美者乎父勗子兄勸弟惟不克負
荷是懼者修譜之實也若曰人皆修之我獨不修乎云爾則是修譜之名也有
其名而無其實則繡之梓印之楮積其卷爲千萬計者不過一文具焉耳結構
壯麗無人而居之是空宮也釘餽方丈無人而食之是畫餅也先德孔彰無人
而肖之是虛譜也譜旣文具則序亦文具也君子奚取焉曰吁敢不夙夜祇敬
遂書而爲之弁乞余語者曰泰攸基柱

昭陽大淵獻姑洗哉生明安東金甯漢謹序

始祖

任灝

中國吏部尚書紹興府居焉今浙江省紹興縣乘石舸浮海東來至長興天冠山下任子島停泊寓居唐洞仍封是鄉爲之貫

一世

懿

號石川

檀紀三三七四年高麗十代靖宗七年辛巳生(西紀一〇四二年宋仁宗慶歷元年)

少而力學開禧九年文科壯元拜紫宸殿太學士高麗宣宗在藩邸時聞其名受經還朝之日仍爲師傅意奏請皇朝許以送之奉命同來宣宗元年丙子爲典籤右承肅宗朝爲刑部侍郎四年己卯爲左諫議五年庚辰與侍郎白可臣如宋弔哲宗喪辛巳爲御史癸未爲兵部尚書同知樞密院事乙酉爲吏部尚書睿宗丙戌爲尚書左僕射丁亥爲權判東北面兵馬使庚寅爲太尉門下侍郎平章事致仕歷事宣宗獻宗

二世

子元厚 文忠公

子元淑 平章公

子元順

檀紀三四三〇年高麗

肅宗二年丁丑生

(西紀一〇九七年宋

哲宗紹聖四年)

睿宗十一年丙申登文

科仁宗五年丁未爲禮

賓少卿御使兼樞密院

副事己酉同知樞密院

事尋判兵部事門下侍

郎毅宗即位遂加宣忠

安社佐理同德翊聖功

臣三重大臣開府儀同

三司守中書令上柱國

平章事判刑部爲太子

少傳封定安公食邑六

百戶西紀一一四九年

毅宗三年己巳卒享年

五十三贈諡文獻公

三世

子伯瞻 中郎將

殿中內給事

四世

子孝明

殿中內給事

五世

子邦富

金紫光祿大夫同中書

門下侍郎平章事判吏

部事爲太子太師

配貞敬夫人晉州姜氏

夫譜者是上自祖先으로下至後裔에 著世代序昭穆分宗支와 敦行孝悌親睦而已也니 一部에서는 大同譜를 舉論타가 今春에 于先國士齊公派만의 派譜를 하자는 門議가 齊發되어서 設廳于飛月精舍하고 一一收單整書하야 自春至秋에 事已完成하니 此豈非吾先祖積德累仁之擇耶아 然而 添述私見則此譜發議時에 甲子譜爲主와 丙申譜爲主의 兩論이 論議의 對象이 되다가 結局丙申譜爲主로 衆論이 可決되었으나 兩譜間의 根本的差異로 昭穆名行에 差誤가 生하였음은 深甚遺憾之事나 莫可奈何라 此後則自穩城公爲始하고 其上은 止於記述事蹟이 爲可로 思料되오며 是役也에 余以不肖로 猥幹重務하니 竣事之日에 畧書所感如右云爾

丁巳七月肇秋後孫

順模

(飛月)

謹識

菊圃公所著桂花齊八景

師峰初月

講林霽雲

島坪牧笛

木谷樵壘

龍洞曉雨

鷺峙晚霞

橋頂漁火

石門梅花